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12.10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사랑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18년 대학장학금 장학생 선정

광주지역 내 대학 재학 중인 회원 자녀와 각 대학추천 학생 등 6인 선정

광주광역시, 2019년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광주건축사회, 회원 편의 위해 오는 12월 19일과 21일 사전접수 받아 일괄제출 예정

2018년 건축문화사랑 발행인 & 편집위원 & 학생 기자 워크숍 개최

11월 22일과 23일 광주전남지역 일원에서... 합동간담회·위촉장 전달·투어 등 진행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진행...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와 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수료식 개최

지난 12월 1일 전남대학교 영명홀에서... 42명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

Editorial

건축물의 공정한 경쟁과 인정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오는 14일 여수에서 개최

베네치아 호텔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윤리교육 진행, 본식은 5시

전북건축사회, 2018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16일 완주군 오성한옥마을 등지에서... 회원 등 67명 참가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진행

오는 12월 18일에... 수강 신청은 17일까지... 송년회와 함께 진행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전북 군산에서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군산 도시 분석 특강... 학생 등 40여 명 참여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랑에서 _ 마흔아홉 번째

갈등

특별기고

광주,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건축 논란

세상사는 느낌

건축을 배우며...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건축물의 공정한 경쟁과 인정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이다.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건축물'이라 극찬한 이 건물에는 미국 철강계 거물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직접 수집한 현대미술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전시 미술품보다 미술관 자체가 더 유명한 이 건축물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쇠퇴와 부활의 역사에 중심에 있던 것으로,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지역의 건축물은 '빌바오 효과'라는 스페인의 소도시가 하나의 효과를 만들어 내어 학문적 용어까지로도 파생되었다는 사실과 이 용어가 건축에 있어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건축물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성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부분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문화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도덕적 책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쟁을 하고 있는 건축현상공모에서 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에서의 배점과 평가요소 등이 잘 정립되어야 하며, 심사하는 평가자들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불공정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기지만, 경쟁이 공정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덴마크 출신 요른우손이 1955년 시드니 복합문화공간 디자인 국제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오페라하우스는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실격 처리되었으나 심사위원인 에로사로렌이 설계안의 독창성과 경제성에 주목하여 다른 심의위원을 설득하여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고, 2003년 오페라 하우스 30년을 맞이하여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였고 시드니의 건축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좋은데 문제는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생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와 같은 수용의 전제는 그 과정에서의 경쟁규칙이 공정하게 정립되어 있고, 충분히 고지되고 인정이 된 상황에서 경쟁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지라,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하지 않으면 공모의 의미를 유아독존(唯我獨尊)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에 그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각 분야에 참여자들의 건강한 역할을 기대하며 이러한 부분이 모여서 빛을 발할 때,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광주에 지역을 넘어서는 건축물이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고성석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상록도서관

강현구 건축사 /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광주 북구 서암대로 315, 7층 Tel. 062-653-8122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11-11 외 3필지 / 건축면적 : 589.51㎡ / 연면적 : 1,696.85㎡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18년 대학장학금 장학생 선정

광주지역 내 대학 재학 중인 회원 자녀와 각 대학추천 학생 등 6인 선정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회장 강현구) 장학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사회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정의 건에 대해 협의했다.

장학위원회(위원장 장정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두 달 동안 회원들과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장학생 후보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6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학생들에 대한 수여식은 오는 1월 초에 진행되는 광주건축사회 시무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현구 회장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학업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는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정된 대학장학금 장학생 최종명단이다.

구분	성명	학교
1	박예찬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학과 2학년
2	김주연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3	조승현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4	최연비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2학년
5	박가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6	정태윤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광주광역시, 2019년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광주건축사회, 회원 편의 위해 오는 12월 19일과 21일 사전접수 받아 일괄제출 예정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법 제25조의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년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할 공사 감리자 모집을 12월 17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감리 수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 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이다.

신청방법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 행정처분조치서(19일부터 21일 사이 발급용)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다만, 광주건축사회원은 회원 편의를 위해 19일과 21일 3일간 사전 접수받아 시에 일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01393번을 참고하면 된다.

法家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 공증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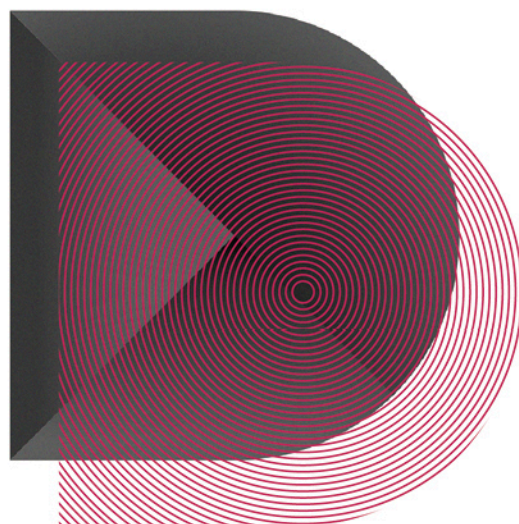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대표번호사
박철 / 朴哲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0
F . 062-223-5376
M . 010-6678-1551
E . pcgranfa@hanmail.net
www.법가.com

같지만 다른 카드,
아키디자인

기간제한 없이 무료!



1899-9260

작업효율 아키디자인, 무료제품 론칭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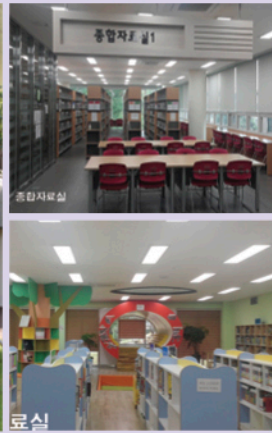
100%당첨 이벤트

무료카드 쓰고,
무선충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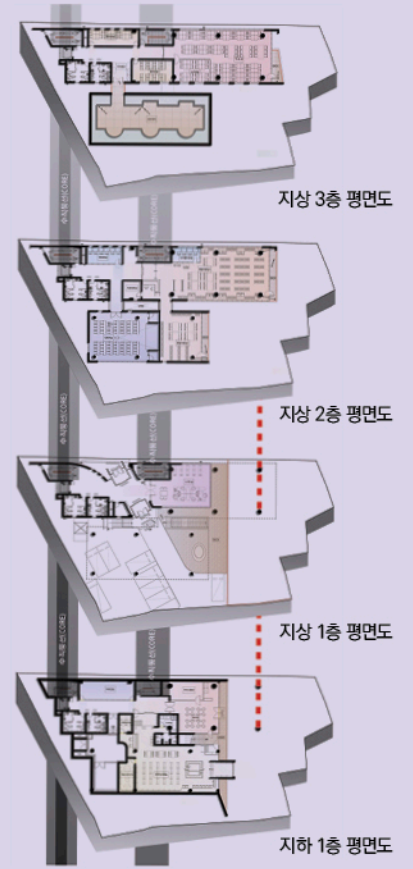


*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아키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idasCAD.com



- 상록공원과 광주시립미술관 그리고 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 기존 시설인 시립미술관에서 출입하여 도서관으로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 유도
- 상록관에서의 산책로를 통한 자연스러운 접근성 확보
- 경사에 순응하는 배치(지하 1층)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접근이 되도록 계획



2018년 건축문화사랑 발행인 & 편집위원 & 학생 기자 워크숍 개최

11월 22일과 23일 광주전남지역 일원에서... 합동간담회·위촉장 전달·투어 등 진행



본지 건축문화사랑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학생 기자 워크숍이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광주·전남지역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공동 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및 각 지역 편집위원, 대학생 기자 등 신문 발행에 참여하고 있는 25명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건축물 투어와 합동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건축물 투어에는 편집위원과 학생 기자들이 광주 동구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올해 제22회 광주광역시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수상작인 라티스 빌딩을 답사하며, 광주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배우고 토론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동발행인들과 함께 진행한 합동간담회에서는 향후 건축문화사랑 신문 예산과 편집 관련 사항, 편집위원·학생 기자 활동 지원방안, 2019년 창간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학생 기자 위촉식도 가졌다.

구분	성명	소속
창간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재형	건축사사무소 선 (현 자문위원)
신임 학생 기자	정다인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홍승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양민희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정태윤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정민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경호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 합동간담회 결과

- ① 각 건축사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소속 편집위원에게는 공로패와 소속 학생 기자들에게는 공로패 및 장학금을 지급기로 협의하였음
- ② 광고 수주계획 수립 시 광주건축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주토록 하고 전남과 전북건축사회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음
- ③ 지역지면 구성 시 기존 광주→전남→전북 순서를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변동기로 하였음
- ④ 매월 발행된 pdf 파일을 광주·전남·전북지역 전체 회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기로 하였음
- ⑤ 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게시판에 본지 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기로 하였음
- ⑥ 각 대학 학생 기자 위촉 여부를 소속 대학 학과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기로 하였음
- ⑦ 창간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 날인 23일에는 편집위원 및 학생 기자들이 나주 금성관을 답사하며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후 올해 건축문화사랑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강동영 편집인은 “합동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지 편집 방향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노기영 건축사 / P2P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장신로 31, 4층
- 정영진 건축사 / 휘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409호

• 전출

- 최성규 건축사 / 수 건축사사무소 → 충남 천안

• 변경(소재지)

- 강종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바른 /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98, 2층
- 조휴환 건축사 / 수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광산구 장신로 337, 202호
- 이수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스 / 광주 서구 광산구 장신로 337, 202호
- 김은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도 / 광주 남구 주월로 58, 2층
- 윤대두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광주 남구 주월로 58, 2층

• 결혼

- 고재량 건축사 / 성하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11월 16일(일)

• 부고

- 최보은 건축사 / (주)창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28일(수)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빙부상 - 12월 03일(월)



유달산게스트하우스 “설레임

임현정 건축사 / 립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2, 5층
Tel. 061-285-8677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35번지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2㎡ / 건축면적 : 165.62㎡ / 연면적 : 229.52㎡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외단열도달시스템 스타코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진행...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와 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가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진행에 나섰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전남지역의 기초수급자, 한부모,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주거 약자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섰다. 대상지는 장흥군 장평면 소재 미혼모 가정과 광양시 봉강면 소재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으로 선정하고, 12월까지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개선 및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 시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순천대학교와 동신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전남지역 소재 대학 4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월 14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소속 회원들이 건축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수료식 개최

지난 12월 1일 전남대학교 영명홀에서... 42명 수료자에게 수료증 수여



전남건축사회 주관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약 2개월가량 진행한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이 지난 12월 1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은 한옥의 현대화와 한옥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건축사회가 협약을 맺고, 건축사와 실무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옥설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한옥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수료식은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과 전남한옥설계교육원 천득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영명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건축사 수료자 34명과 학생 수료자 8명이 참석했다. 건축사 및 실무자에게는 전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학생에게는 전남건축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됐다.

한편,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건축사와 실무자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커지고 당당해지고 든든해지고

신협에 가면, 금융생활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대출 서비스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사업장 구입자금대출,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타행 포함) 신용대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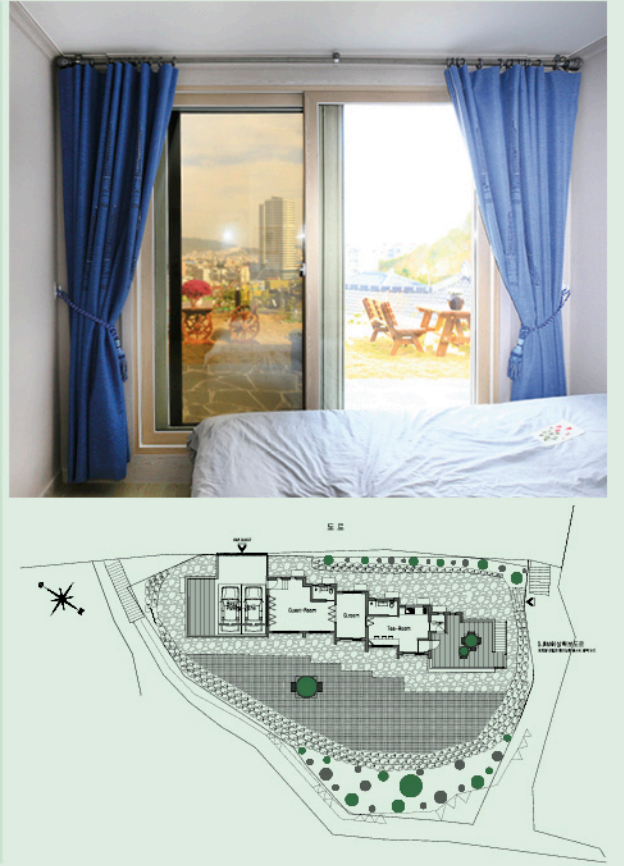
광주건축시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목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따른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게스트 하우스 '설레임'은 탄생되었다. 본 대지는 유달산을 둘러 안은 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목포의 도시 풍광을 품어 아름다운 자연을 가득히 담아 머물 수 있는 비움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한 대지였다. 저예산이라는 제약된 최소한의 충족을 만족시켜 '설레임'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감성의 건축 공간으로 확장되어 사용 되어질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줬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공유할 수 있는 골목계단과 골목길을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출입구를 골목에 배치하였으며 주변의 옛 정취를 가진 주택가와 어울릴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고자 볼륨, 디자인, 색상, 고도지구 제한에 의한 층고를 절제되게 사용함으로써 오래된 곳과 현재의 이곳의 조화로우름을 담아 내 고향 목포에 장소적인 특성이 전달되는 건축이 되기를 바라본다.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오는 14일 여수에서 개최
베네치아 호텔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윤리교육 진행, 본식은 5시

'2018 전남건축인의 밤' 행사가 오는 12월 14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 호텔 3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빈도림 전 독일연방 외무부 주한 독일대사관 서기관을 초빙하여 건축사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교육 1시간이 인정되는 교육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의식 행사와 축하 공연, 화합 마당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의식 행사에서 공로패와 감사패,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의식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남건축인의 밤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건축인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남건축사회 주최, 2018 추계 호남건축사 골프대회 열려

지난 11월 29일 전남 순천 승주CC서... 전남·광주·전북 건축사 90여 명 참석



호남지역 건축사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골프를 통한 우애를 다졌다. 지난 11월 29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승주컨트리클럽에서 전남건축사회 주최로 '2018 추계 호남건축사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등 전남·광주·전북 건축사 90여 명이 참가했다.

조연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3개 시·도건축사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여 현재 건축경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한편, 호남권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를 통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7일 전북건축사회 주최로 열린 제1회 호남지역건축사 골프대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토부 평가서 모범사례로 인정... 전남건축사회 등의 재능 기부도 한몫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주거복지 혁신대상' 평가에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온 '행복동지사업'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평가는 '2018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약 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전라남도건축사회 등의 재능을 기부받아 주거약자 총 348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행복동지사업을 추진했다.

행복동지사업은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를 넘어서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 주거 안전과 생활편의를 갖춰주는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0만 원 기탁

지난 11월 16일 회원 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서천변 환경정화 활동도 펼쳐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엽)는 지난 11월 16일 광양읍 덕례리 소재 서천체육공원 및 월드볼링센터에서 단합대회 겸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지역 건축사회 회원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서천 체육공원 주변 환경

정화 활동과 볼링대회를 가졌다.

특히 건축사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에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박병엽 회장은 "회원들 간의 기부문화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힘이지만 더하고자 어린이보육재단에 후원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집 고치기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공재현 건축사 / 현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양율로208번길 2, 203호
- **변경(소재지)**
- 정집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2, 301호

그 날의 온도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신남로 28, 5층
Tel. 063-224-1492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378-3 외 2필지 / 대지면적 : 3,830.00㎡ / 건축면적 : 729.68㎡ / 연면적 : 1,297.51㎡ /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징크판넬



전북건축사회, 2018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16일 완주군 오성한옥마을 등지에서... 회원 등 67명 참가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11월 16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 등지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등 6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태원)가 주관했으며 참가자들은 담양대학교 장택주 교수의 안내로 오성한옥마을을 탐방하고 중식을 함께하며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길환 회장은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여 도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합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한마음 걷기대회는 격년으로 전주시건축사회와 기타 시·군 건축사회가 번갈아 가며 주관하고 있다.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진행

오는 12월 18일에... 수강 신청은 17일까지... 송년회와 함께 진행

전북건축사회는 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 30분 전주 오피리스 5층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인정 시간은 윤리교육 1시간이며 강사는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이 '건축법과 건축사 윤리'에 대해 직접 강연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1만 원이다.

다만, 비회원은 수강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날 실무교육 진행에 이어 전라북도건축사회 송년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전북 건축사 회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전북 군산에서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군산 도시 분석 특강... 학생 등 40여 명 참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북 군산에서 군산의 도시 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NC+ 취업실무역량 강화프로그램 교육 일환으로 열렸으며, 임용민 담당 교수와 교수진, 4학년 학생 등 40

명이 함께 했다.


앞서 학생들은 두 달간 진행된 수업에서 총 9개 조로 나뉘어 자신이 맡은 도시 분석 주제를 가지고, 군산 대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번 세미나에서 그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군산 이당미술관에서 군산대학교 건축공학전공 박성신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정경호 학생 기자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제과·제빵을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건축주의 딸을 위해 두 번째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도로도 없는 4,000평에 달하는 배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기존 지형의 조건에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지형을 분석하며 자연공간과 건축공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시킬 수 있었다. 완공 후, 야외예식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의 특징 있는 포인트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HOT PLACE'가 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12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8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북대학교는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이하 남 교수)가 지난 12월 6일 서울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에서 열린 '2018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남 교수는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보호에 힘써왔다. 또 지역 문화재 위원으로 향토 유적의 발굴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2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한옥전시회를 해 오는 등 한옥의 세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UNESCO 주최 세계 MOOC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한옥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도 건축문화재의 보호와 우리 고장의 한옥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옥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북대학교 국토교통부 고위정책과정 한옥 교육 실시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에서 선발된 고위직 공무원 40명 참가



전북대학교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2018년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고위직 정책과정(한옥)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1주일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하여 한옥정책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인데 중앙부처와 전국에서 선발된 고위직 공무원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1주일 동안 이남호 총장의 특강을 비롯하여 인간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의 특강 등 이론 강의와 한옥체험, 한옥실습, 전주한옥마을 답사 등을 경험했다.

이번 교육을 유치한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한옥기술종합센터장)는 "우리 대학교와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한옥기술을 자랑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과 같이 힘을 합쳐서 손님을 모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유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우수한 한옥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한건축학회, 농촌건축학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한옥 관련 워크숍을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자랑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한옥의 최고 고장이라는 명예를 드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고창지역 한 초등학교에 정자 기부

교육생들 실습 결과물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는 한옥특성화캠퍼스인 고창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한 결과물인 정자를 인근 지역에 있는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한편 지역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 정자는 고창캠퍼스의 전문 교수진이 설계하고 전통목수가 참여하여 학생들과 같이 작업한 결과물로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전통건축물이다.

남해경 센터장은 "우리의 학교시설물이나 기자재, 교육과정의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생들이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며, "고창캠퍼스가 고창지역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숨 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실습물을 고창지역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통건축물을 기증받은 고창아산초등학교 김미순 교장은 기증받은 정자를 소중히 관리하여 우리 학교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경관을 만들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2016년에 미국의 North Carolina와 New York에서 개최했던 한옥전시회를 계속 추진하여 내년에는 일본 등지에서 한옥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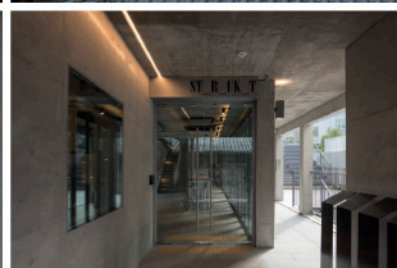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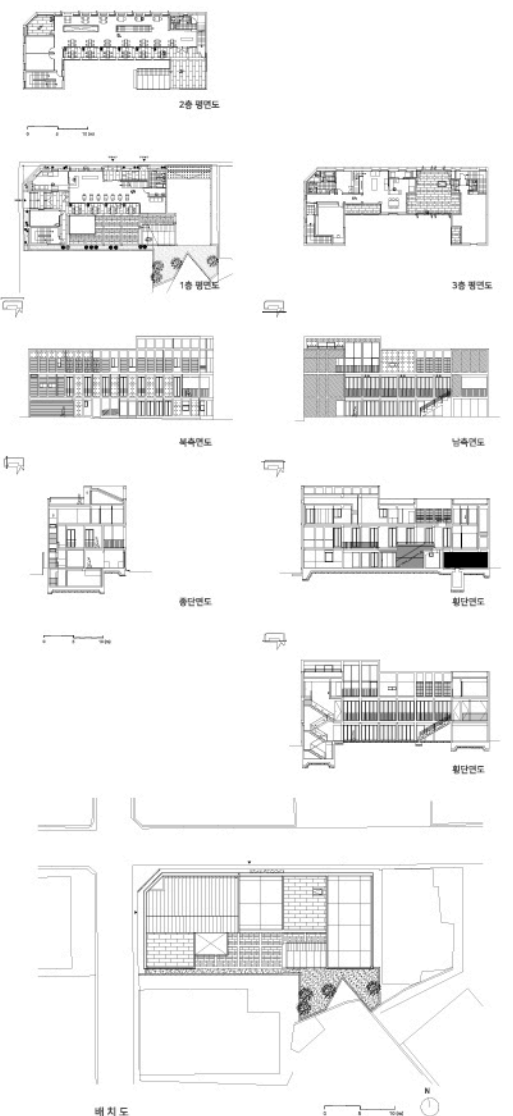
- **전입**
- 여세현 건축사 / 이안누리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331
- **퇴회**
- 황정수 건축사 / 복지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조영철 건축사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명륜길 29-4
- 김중원 건축사 / 아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9
- 안홍준 건축사 / (유)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정안2길 9
- **결혼**
- 송준태 건축사 / 아키준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2월 22일(토) 오후 12시
- **부고**
- 이상호 건축사 / 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09일(금)
- 김병술 건축사 / 토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10일(토)
- 김건욱 건축사 / KOK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18일(일)
- 박종수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11월 21일(수)
- 신명희 건축사 / 유리재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23일(금)
- 강춘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소리재 / 모친상 - 11월 30일(금)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설계자 : 강제용 건축사 (이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김광유 대표 (공정건설(주))

라티스 빌딩 (Lattice Bldg.)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명로14번길 14
 대지면적 : 530.06㎡
 건축면적 : 299.84㎡
 연면적 : 832.81㎡
 건폐율 : 56.57%
 용적률 : 131.82%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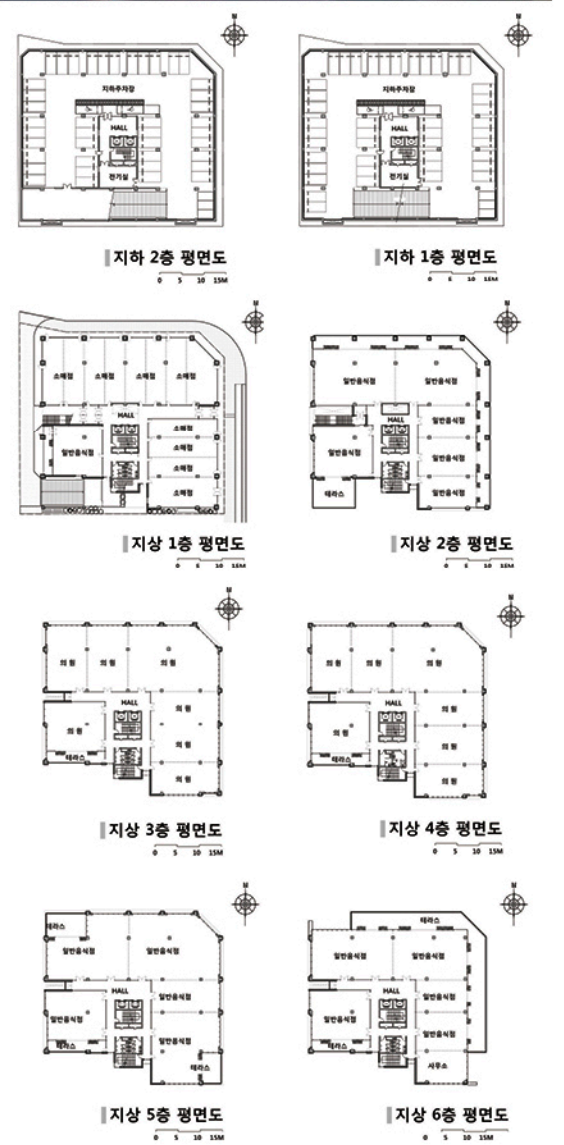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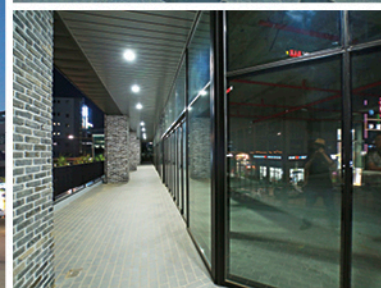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일반 분야) 대상

설계자 : 김 용 건축사 (김용 건축사사무소)

테라스 “삼(#)”

대지위치 :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691-1
 대지면적 : 1,892.30㎡
 건축면적 : 1,323.75㎡
 연면적 : 10,586.32㎡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요 마감 : 청고벽돌, 고내식성 발색강판



사랑에서 _ 마흔아홉 번째

갈등

지난 12월 3일,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재건축구역 철거민이 한강에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잘 곳도 없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5일에는 마포구청 앞에서 빈민해방실천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거민의 죽음은 강제철거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인·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인 마포구청 등 정부 기관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청 앞, 검은 천으로 감싸진 상여와 조화로 쓰이는 국화를 앞에 두고 100명은 죽히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다수가 고령자로 보이는 그들의 손에는 '재개발 반대' 혹은 '정비구역 해제'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재개발을 반대하고, 감독관청을 규탄하는 시위'였다. 재개발로 인한 갈등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적법이라 비하하고, 행정관청을 규탄하는 수준을 넘어 도정법과 구청장의 장례식까지 감행하는 서늘한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울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혼돈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개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추억이 담겨있는 집과 동네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엔 고층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살가로는 그곳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고, 이웃들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후한 건축물과 좁은 골목, 조잡했던 기반시설 등 불편했던 생활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재개발보다 재생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재개발의 필요성과 폐해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남 일 같지가 않았다.

또 하나는 직업(건축사)과 사회참여(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도시위원회)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는 토건족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는 구호가 메아리쳤다.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건축사도 토건족의 일원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반면에 건축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건족이 관여하는 개발사업 중에서 시민들의 권익에 반하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자인 행정기관이 개입된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만다. 솔직히 그런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남다른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점을 고백한다.

건축문화에는 그 시대의 이념과 사회상이 반영되는 것은 확실하다. 역으로 건축문화는 그 시대의 사상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신하고 있다. 건축사로서의 개인적인 갈등은 물론이고, 건설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그러한 논리에 의해 해법을 찾으면 어떨까? 오늘도 올바른 사회를 유도하는 건축문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화이팅!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안내[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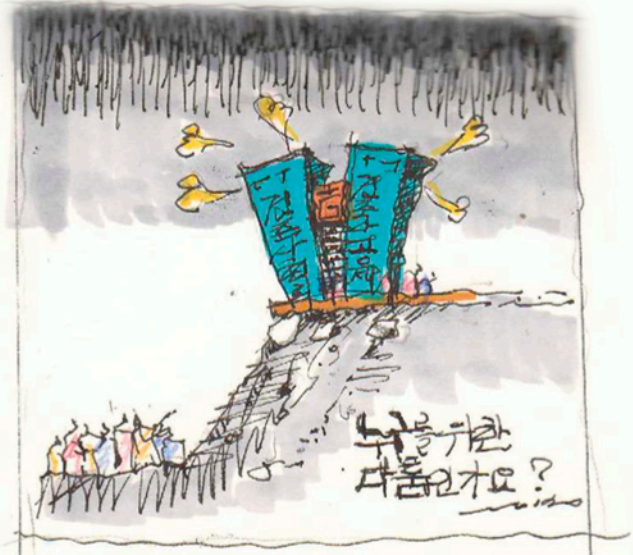
-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따라 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제32조 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따라 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이길환 건축사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앤지 500,000원
- 안길전 건축사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50,000원
- 김선영 건축사 일우 건축사사무소 250,000원
- 광주건축사회 임원 1,500,000원
- 전라남도건축사회 500,000원
- 전라북도건축사회 500,000원
- 정명환 건축사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100,000원
- 정상재 건축사 초석 건축사사무소 100,000원
- 오금열 건축사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원고마감 : 매달 2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특별기고 _ 이창을 대한건축사협회 前부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前부회장·現감사

광주,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건축 논란

상업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축을 억제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논란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무등산이 보이는 광주다움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고 학교와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함이고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관의 세분은 국토경관, 자연경관, 도시경관, 가로경관, 상업지역경관, 준주거지역경관, 주거지역경관 등 관계적 경관이 있고 경관점에 따라 근경·중경·원경의 경관으로 구분합니다.

광주 도시면적 1.8%의 상업지역에서 '무등산이 안 보인다. 주거지역 사는 주민들이 상업지역의 고층화로 무등산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지나친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까요?

'광주의 정체성, 광주다움의 도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산업화, 도시화 혁명 50여년 동안 광주·전남·북에서 150만 명의 인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갔고, 광주의 GDP는 17개 시·도 중에서 항상 꼴찌 수준입니다. 광주가 전남·북의 거점 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먹고 살 만한 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광주에서 매년 8천여 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과 여의도, 부산의 해운대, 인천의 청라지구, 울산 등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21동이 지어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데 이곳의 GDP는 7만 불이 넘습니다.

광주를 비롯 호남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1개도 없습니다. 이는 용적률 기준이 전국에서 제일 낮게 규제되어 있고 층수와 도시 경관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강제·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대표 직업자로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세수 확보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광주 도시의 발전은 행정 주도형이 아니라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순응형이어야 합니다. 건설 산업이 도시 개발 이익을 탈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통제 경제는 역사상 이미 다 망했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35만 명의 동구 인구가 지금은 12만 명으로 줄어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의 서석, 중앙, 수창초등학교는 입학할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도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직주거리를 줄이고 출·퇴근 때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CO₂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 친환경 생태 도시의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모든 행정의 규제 및 조례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제도이어야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타 광역시의 상업지역 용적률 기준은 1,000~1,300%입니다. 광주다움의 도시를 위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낮추어 강제·억제하면 광주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인가요?

더욱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준주택) 용도 적용은 초법적입니다.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준주택)로 규정하게 된 동기는 2010년 당시 내공사가 발주한 용역에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건축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한 오피스텔의 용도는 엄연히 업무시설이며,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도시 발전의 주역은 행정 주도형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극명하게 반하는 지금의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도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반론을 기대합니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거리의 풍경

<p>똥개가 똥을 먹고 있는데 지나치던 다른 녀석이 더럽게 똥을 먹느냐고 빈정대자 예의도 없이 남 밥 먹는데 웬 똥 이야기 하느냐는 민담이 있습니다</p>	<p>알곡이 무엇인지는 지나 보면 알 터인데 왜들 남들 밥 먹는데 똥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인지</p>
--	--

밥이든지
똥이든지

세상사는 느낌 _ 정경호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을 배우며...

많은 사람들은 건축하면 먼저 잘 지어진 예쁜 집이나 건물을 생각해 낼 것이다. 실제로 건축물은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갖는 중요한 개인적 재산이자, 대중이 바라보고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하지만 그 물질적 가치 위에 있는 건축의 정신적인 부분을 간과한다면 제대로 된 건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만일 외형이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가 콘크리트 등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형물이지 결코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에 사람의 삶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간만을 강조한다면 형태에 의해 달라지는 사람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이란 책을 읽었다. 그 중, 건축주는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는 집을 원했고 건축가 또한 건축주를 잘 배려해주는 역할을 읽었다. 스승이신 백석중 교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건축은 벽, 바닥, 지붕을 디자인하여 세 가지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디자인한다.' 그릇이 무언가를 담거나 채우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건축 공간을 채우는 것은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건축을 일컬어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기초란 무엇일까? 기초는 건축물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으며, 땅속에 묻혀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기초의 요소 중 하나인 기둥은 아주 중요하다. 기둥은 건물이 서 있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한 집안의 가장을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표현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둥은 건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건축을 배우며 '기초들로 이루어진 공간에 사람의 삶을 담는 건축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건축사공제조합과 함께

안전한 설계·감리!

행복한 미래!

